



노아의 만취와 그 관련사건(창 9:20-27)에 대한 재고¹

하계상(삼육대)

1. 서론

창세기 9장 20-27절에 나오는 사건, 즉 노아의 만취, 합의 범죄, 그리고 가나안의 저주받음은 그 인과관계가 난해한 이유로 인해 수많은 주석가들이 다양한 이론들을 동원하여 그 퍼즐을 맞추어 보려고 시도해왔으며, 그 와중에 학문적 공방도 결코 적지 않았다.² “노아와 관련하여 그 아들 합의 범한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가나안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이 논문은, 필자가 제110차 한국구약학회 춘계학술대회(2019. 4. 8.)에서 발표한 후 안양대학교 박유미 교수의 논찬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여 보완한 것이다.

2 그 다양한 이론들과 그것들에 대한 비평을 위해서는 김상래, “노아의 음주, 합의 범죄, 가나안의 저주(창 9:20-27)—그 난해한 인과관계 재고”, 제101차 한국구약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2016. 4. 29.), 151-160을 참조하라. 이 논문은 동일한 제목으로 「신학리뷰」 19/2(2017. 8. 31.), 37-69에 게재되었으나 본 논문은 학술대회 자료집에 근거한 페이지를 따른다.

고 왜 저주를 받았는가?”라는 의문들이 연구와 논쟁의 주요 이슈가 되어왔다.

함의 죄와 관련해서 최근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성범죄 주장이며,³ 가나안의 저주와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제기된 것은 함과 가나안의 공동 성범죄 주장이다.⁴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은 성경 본문에 대한 면밀한 독법에 근거해서 볼 때 과연 올바른 것일까? 만일 그 주장들이 옳바르지 않다면 함의 범죄와 가나안의 저주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옳은 것일까?

필자는 최종 형태로서의 히브리어 본문 창세기 9장 20-27절을 공시적-문학적 방법에 의해 우선적으로 면밀하게 읽을 뿐만 아니라 문제의 본문과 해석상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되어 왔던 다른 본문들과의 간본문적 해석(inter-textual interpretation)도 고려하면서 창 9장 20-27절의 해석 문제를 다시 고찰하고자 한다.

2. 본론

함의 범죄가 부친과의 근친상간 혹은 모친과의 근친상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되는 표현들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성범죄 해석의 핵심적인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술이 깬 노아가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창 9:24)는 사실이다.⁶ 여기서 **יָדָע**(아사-로/그에게 행한)는 노아의 작은 아들이 능동적으로 노아에게 무언가 행하였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노아

3 김상래, *윗글*, 154-155.

4 이것은 김상래 교수의 주장이다(참조, *윗글*, 160-161). 이 주장에 대한 김창주 교수(한신대학교)의 논찬을 위해서는 김창주, “김상래 박사의 ‘노아의 음주, 함의 범죄, 가나안의 저주(창 9:20-27)—그 난해한 인과관계 재고’에 대한 논찬”, 제101차 한국구약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2016. 4. 29.), 163-164를 참조하라.

5 간본문적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국내 논문들을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이충열-하계상, “창세기 2장 5-6절의 번역/해석 및 기능에 관한 고찰”, 『구약논단』 61(2016. 9. 30), 76-104; KyeSang Ha, “Old Testament Eco-the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Righteousness and Justice”, *Theological Forum* 90(2017. 12. 31.), 259-290; 이충열-하계상, “레위기 16장을 중심으로 한 아사셀의 정체에 관한 재조명”, 『신학논단』 91(2018. 3. 31.), 175-205.

6 김상래, *윗글*, 154.

의 작은 아들이 함이라면 이 구절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창 9:22)는 사실이 별 의도 없이 우연히 훔쳐 보게 되었거나 심지어 관음증에 의한 것도 아니었음을 나타낸다는 것이다.⁷ 만약 함이 그런 식으로 보기만 했다면 포도주로 쯤아떨어진 노아가 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노아가 술이 깬 후 함이 자기에게 무언가 행했다는 것을 알고 저주했다는 사실은 노아 자신이 그 행위의 희생자가 되었음을 인지하였기 때문이며, 그 행위는 바로 성행위라는 것이다.⁸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창 9:22)는 것이 성관계의 관용적 표현으로 간주되어 함의 범죄가 부친과의 근친상간으로 해석되었는데, 그 결정적인 증거는 “누구든지 그 자매…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 그가 그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레 20:17)이라는 구절이라는 것이다.⁹ 창세기 9장 22절의 ‘하체를 보다’와 레위기 20장 17절의 ‘하체를 보다’는 동사와 목적어가 정확히 일치할 뿐만 아니라 레위기 20장 17절은 ‘하체를 보다’와 ‘하체를 범하다’를 평행대구에 의한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다’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⁰

게다가 노아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는 것도 성관계를 나타내는데, ‘벌거벗었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גָּלָה(갈라)는 구약의 여러 구절에서 עָרְוָה(에르바/하체)와 결합되어 불법적인 성관계를 묘사할 때 사용되었다는 것이다.¹¹ 그가 장 대표적인 경우가 “너희는 골육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는

7 참조, Robert A. J. Gagnon, *The Bible and Homosexual Practice: Texts and Hermeneutics* (Nashville, TN: Abingdon, 2001), 65; 김상래, *윗글*, 154. 그런데 이 주장은 게르하르트 폰 라트(Gerhard von Rad)가 그의 주석, *Genesis: A Commentary*, rev. ed., John H. Marks (tr.), John John Bowden (rev.) (OTL: London: SCM Press Ltd, 1972), 137에서 했던 암시가 그 시발점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주후 2세기 이전부터 유태인들의 성범죄 해석이 있었다(참조, Kenneth A. Mathews, *Genesis 4:27-11:26* [NAC; Nashville, TN: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6], 418 n. 159).

8 김상래, *윗글*, 154.

9 *윗글*, 155.

10 *윗글*.

11 *윗글*.

명령으로 시작하는 근친상간 금지규정인 레위기 18장 6-19절과 20장 11, 17-21절이라는 주장이다.¹² 이 본문의 매 구절에서 ‘갈라’는 성관계를 의미하는 동사로 사용되었는데,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신명기 22장 30절[H 23:1]과 27장 20절에서는 이 단어가 קָטַף(카나프/날개, 끝, 하체)와 결합하여 “하체를 드러내다”로 번역되었으며, 에스겔 16장 36-37절, 22장 10절, 그리고 23장 10, 18, 29절 등에서도 같은 용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¹³ 이렇게 볼 때 노아가 벌거벗은 것은 단순히 취한 결과가 아니고 그 이상이 되므로, “본 것이 단지 본 것 이상인 것처럼 ‘벗은 것’도 그냥 벗은 것 이상”, 즉 성적 행동이라는 것이다.¹⁴

이제 우리는 성범죄와 관련되어 언급되는 “하체를 드러내다”(הִלֵּךְ[갈라] 강세형 능동태+הִרְבֵּה[에르바])와 “하체를 보다”(הִצִּי[라이] 기본형 능동태+הִרְבֵּה[에르바])라는 표현들을 각각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구약의 본문들에서 그 표현들이 사용된 문맥을 특히 주목해야 하며, 구약의 본문들 자체가 그 표현들의 의미를 명백하게 하려고 병치하거나 결합한 표현들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1) “하체를 드러내다”(הִלֵּךְ[갈라] 강세형 능동태+הִרְבֵּה[에르바])

הִלֵּךְ(갈라) 강세형 능동태+에르바(הִרְבֵּה),¹⁵ 즉 “하체를 드러내다”라는 표현이 근친상간을 포함한 불법적인 성관계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사용된 것은 사실이다(레 18:7[2x], 8, 9, 10, 11, 12, 13, 15[2x], 16, 17 상단; 20:19; 쥘 23:10¹⁶). 그

12 윗글.

13 윗글.

14 참조, Devora Steinmetz, “Vineyard, Farm and Garden: The Drunkenness of Noah in the Context of Primeval History”,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3/2 (1994), 199; 김상래, 윗글, 155.

15 참조, Claus Westermann and Rainer Albertz, “הִלֵּךְ glh to Uncover”, *Theological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1:317.

16 문맥으로 볼 때 전시(戰時)의 강간인 듯하다. 표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시의 강간으로 보이는 경우는 이사야 47장 3절, 예레미야 13장 22절, 에스겔 23장 10절과 29절, 호세아 2장 10절[H 12절], 나훔 3장 5절 등이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사야 47장 3절에는 ‘하체가 드러내다’(הִלֵּךְ[갈라] 기본형 수동

표현이 구약에서 가장 많이 무려 12번이나 사용된 곳은 레위기 18장 6-19절이다. 그런데 레위기 18장 6-19절¹⁷은 그 시작(6절)과 끝(19절)이 ‘קָרַב(카라브) 기본형 능동태+אָל(엘) + גָּלַה(갈라) 강세형 능동태 부정사 연계형+וְהִרְוּהָ(에르바)’로 봉입구(封入句, inclusio)를 이루어 6-19절을 하나의 단락으로 묶고 있는 동시에 7-18절 전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קָרַב(카라브) 기본형 능동태+אָל(엘)+ גָּלַה(갈라) 강세형 능동태 부정사 연계형+וְהִרְוּהָ(에르바)’의 표현에서 그 전반부인 ‘קָרַב(카라브) 기본형 능동태+אָל(엘)’은 “~에게 (성적으로) 가까이하다/approach (sexually)”(남자가 주어인 경우—창 20:4; 레 18:6, 14, 19; 신 22:14; 사 8:3; 겔 18:6; 여자가 주어인 경우—레 20:16)를 뜻한다.¹⁸ 따라서 그것은 그 후반부인 ‘גָּלַה(갈라) 강세형 능동태 부정사 연계형+וְהִרְוּהָ(에르바)’(to uncover nakedness)에 분명한 의미를 부여하는 문맥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קָרַב(카라브) 기본형 능동태+אָל(엘) + גָּלַה(갈라) 강세형 능동태 부정사 연계형+וְהִרְוּהָ(에르바)’는 “~에게 가까이하여 하체를 드러내다/범

태+וְהִרְוּהָ(에르바)가 ‘수치가 드러나다’(הָאָר[라이] 기본형 수동태+הִרְוָה[헤르파/수치])와 병치되어 사용되었으며, 바벨론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예레미야 13장 22절에는 ‘치마가 벗겨지다’(הָלַף[갈라] 기본형 수동태+וְהִרְוּהָ[술/웃단]), 에스겔 23장 29절에는 ‘하체가 드러나다’(הָלַף[갈라] 기본형 수동태+וְהִרְוּהָ[에르바])가 사용되었고, 앗수르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호세아 2장 10절(H 12절)에는 ‘수치를 드러내다’(הָלַף[갈라] 강세형 능동태+וְהִרְוּהָ[나블로트/음란])가 사용되었으며,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나훔 3장 5절(참조, 렘 13:26)에는 ‘치마를 벗기다’(הָלַף[갈라] 강세형 능동태+וְהִרְוּהָ[술/웃단])가 הָאָר[라이] 사역형 능동태+וְהִרְוּהָ[마아트/벗은 곳] 및 הָלַף[칼론/모욕]과 병치되어 사용되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으로서 영적 음행이 에스겔 16장 36절에는 ‘하체가 드러나다’(הָלַף[갈라] 기본형 수동태+וְהִרְוּהָ[에르바])로 언급되어 있고, 에스겔 23장 18절에는 ‘하체를 드러내다’(הָלַף[갈라] 강세형 능동태+וְהִרְוּהָ[에르바])가 ‘음행을 나타내다’(הָלַף[갈라] 강세형 능동태+וְהִרְוּהָ[타즈누트/간음])와 병치되어 언급되어 있다. 에스겔 16장 37절도 바벨론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전시의 강간으로 보이는 경우이지만, 이 논문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성경 본문이므로 각주가 아닌 본문에서 다룰 것이다. 그리고 하박국 2장 15절에는 만취하게 하는 의도를 “하체를 드러내다”(וְהִרְוּהָ[나바트] 사역형 능동태+וְהִרְוּהָ[말+וְהִרְוּהָ[마오르/음부])와 연관시켜 언급하고 있다.

- 17 레위기 18장의 불법적인 성관계 금령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조미형, “레위기 18장의 성행위 금령 연구”, 『구약논단』 23(2007. 3. 31.), 120-146; 조미형, “레 18장과 고대 서아시아 법전의 성금령 비교 연구”, 『구약논단』 32(2009. 6. 30.), 167-191; 김진명, “레위기 18장의 정경적 전개에 관한 주석적 연구-땅이 토해낸다-는 표현의 의미 해석”, 『구약논단』 51(2014. 3. 31.), 96-121.
- 18 ‘קָרַב(카라브) 기본형 능동태+אָל(엘)을 레위기 20장 16절은 ‘וְהִרְוּהָ(리바) 기본형 능동태 부정사 연계형’(-와 동침하다)과 결합하여 “가까이하여 교합하다”라는 의미로 여성의 수간(姦姦) 금지규정에 사용하고 있으며(참조, 레 18:23 하단), 에스겔 18장 6절은 “더럽하다”(וְהִרְוּהָ[타메] 강세형 능동태)와 병치하여 성관계 금지규정에 사용하고 있으나, 신명기 22장 14절은 ‘וְהִרְוּהָ[리카흐] 기본형 능동태와 병치하여 아내와의 동침에 사용하고 있다.

하다”를 의미하게 된다.

이 단락의 시작인 6절에서 (그리고 이 단락의 끝인 19절에서) 이런 식으로 이 단락의 의미에 대한 전체적인 문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¹⁹ 7절에서 두 번, 그리고 8-13절의 각 절마다 한 번 사용한 “하체를 드러내다”라는 표현은 성범죄를 뜻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4절에서는 “하체를 드러내다”를 “~에게 (성적으로) 가까이하다”(כָּרַב[카라브] 기본형 능동태+לָא[엘])와 병치하여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단락의 시작 및 끝(6절과 19절)과 아래와 같이 절묘한 교차대구를 이루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단락 전체가 하나의 견고한 문학적 구조물을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 6절 A 'כָּרַב(카라브) 기본형 능동태+לָא(엘)'
B 'הָלָה(갈라) 강세형 능동태 부정사 연계형+וּרְרָב(에르바)'
- 14절 B' 'הָלָה(갈라) 강세형 능동태+וּרְרָב(에르바)'
A' 'כָּרַב(카라브) 기본형 능동태+לָא(엘)'
- 19절 A" 'כָּרַב(카라브) 기본형 능동태+לָא(엘)'
B" 'הָלָה(갈라) 강세형 능동태 부정사 연계형+וּרְרָב(에르바)'

그 후 다시 15절에서 두 번, 16절에서 한 번, 그리고 17a절에서 또 다시 “하체를 드러내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으므로 그 표현은 여기서 불법적인 성관계 외의 다른 의미일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미 “하체를 드러내다”라는 표현의 의미가 명백해진 상황에서 17b

19 더욱이 레위기 18장 20절은 הָרָה(나탄) 기본형 능동태+תָּבַב(서코베트/동침)+לָ[르]+וּרְרָב[제라/씨]+לָא[엘] + תָּבַב[타메] 기본형 능동태 부정사 연계형+ב[비]’(~와 통간하여 ~로 자신을 더럽히다)로 간음을, 22절은 “동침하다”는 의미이지만 문맥상 “교합하다”로 번역된 ‘בָּבַב(사카브) 기본형 능동태로 남자의 동성 간의 성관계를, 23a절은 הָרָה(나탄) 기본형 능동태+תָּבַב(서코베트/동침)+ב[비]+ וּרְרָב[타메] 기본형 능동태 부정사 연계형+ב[비]’(~와 교합하여 ~로 자신을 더럽히다)로 남자의 수간을, 23b절은 בָּבַב(라바) 기본형 능동태(“교접하다”)로 여자의 수간을 표현하고 있다. הָרָה(나탄) 기본형 능동태+תָּבַב(서코베트/동침)+ב[비]가 레위기 20장 15절에는 남자의 수간에, 민수기 5장 20절에는 여자의 간음에 사용되어 있다.

절과 18절은 또 다시 그 표현을 또 다른 표현과 결합하여 그 의미를 다시 명백히 하고 있다. הָקַדַּח (라카흐) 기본형 능동태 + הִלָּךְ (갈라) 강세형 능동태 부정사 연계형+ אֶרְבָּא (에르바)가 바로 그것이다. הָקַדַּח (라카흐) 기본형 능동태'(취하다/take)는 결혼으로 아들이(창 21:21; 24:4, 7, 38, 40, 48; 렘 29:6 등) 또는 자기 자신이(창 4:19; 6:2; 11:29; 12:19; 20:2, 3 등) 아내를 취하는 용례가 있으므로, 성적 함의가 있다.²⁰ 그러므로 적법한 결혼 상대가 아니라면 그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²¹ 따라서 הָקַדַּח (라카흐) 기본형 능동태 + הִלָּךְ (갈라) 강세형 능동태 부정사 연계형+ אֶרְבָּא (에르바)'라는 표현에서 הָקַדַּח (라카흐) 기본형 능동태'는 הִלָּךְ (갈라) 강세형 능동태 부정사 연계형+ אֶרְבָּא (에르바)'에 분명한 의미를 부여하는 문맥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로 הָקַדַּח (라카흐) 기본형 능동태 + הִלָּךְ (갈라) 강세형 능동태 부정사 연계형+ אֶרְבָּא (에르바)'는 “취하여 하체를 드러내다” 즉, “취하여 하체를 범하다”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הָקַדַּח (라카흐) 기본형 능동태'의 성적인 함의²²는 다음과 같이 17절 전체의 교차대구를 통해 부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 הִלָּךְ (갈라)' 강세형 능동태 + אֶרְבָּא (에르바)'

B הָקַדַּח (라카흐) 기본형 능동태'

A' הִלָּךְ (갈라) 강세형 능동태 부정사 연계형+ אֶרְבָּא (에르바)'

구약에서 레위기 18장 다음으로 “하체를 드러내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곳은 레위기 20장[5x]이다. 레위기 20장 10-21절도 그 시작(10절)은 “간음하다”(הִסְתַּמֵּךְ [나아프] 기본형 능동태)라는 표현[2x]과 “간부”(הִסְתַּמֵּךְ [나아프] 기본

20 신명기 22장 13절은 הָקַדַּח (라카흐) 기본형 능동태'를 הִכָּסֵם (보) 기본형 능동태+ לָאָה (엘)'("동침하다/go into")과 병치하여 아내와의 동침에 사용하고 있다.

21 예스겔 16장 32절에는 “간음하는 הִסְתַּמֵּךְ [나아프] 강세형 능동태 분사 여성 단수 아내”와 관련하여 הָקַדַּח (라카흐) 기본형 능동태가 사용되어 있다.

22 레위기 20장 11-21절의 불법적인 성관계 문맥에서 14절의 근친상간 금지규정에 הָקַדַּח (라카흐) 기본형 능동태가 단독으로 사용되어 있다.

형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및 “음부”(עֲרֹמָה[나아프] 기본형 능동태 분사 여성 단수)를 언급하고 있고, 그 끝(21절)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던 성범죄를 의미하는 חָפְזָה(라카흐) 기본형 능동태와 “하체를 드러내다”를 병치하고 있으므로, 이 단락의 의미에 대한 전체적인 문맥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11-20절에는 חָפְזָה(라카흐) 기본형 능동태와 “하체를 드러내다”라는 표현이 각각 단독으로 14절과 19절에서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지만, 다른 표현들과 결합되거나 병치되어 여러 번 나온다. 의미심장하게도 “동침하다”(בָּצַח[샤카브] 기본형 능동태)라는 표현²³이 “하체를 드러내다”라는 표현과 병치되어 11-20절의 시작(11절)과 끝(20절)에 사용되어 봉입구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 표현들은 병치되어 18절에도 나오므로, 18절과 20절은 19절의 “하체를 드러내다”를 중간에 두고 교차대구를 이루고 있어 “하체를 드러내다”라는 표현이 성범죄를 의미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하체를 드러내다”라는 표현이 에스겔 22장 10절에서는 “구합하다”로 번역된 또 다른 표현인 חָפְזָה(아나) 기본형 능동태+בָּ(비)²⁴와 병치되어 사용되어 있고, 영적 음행을 뜻하는 에스겔 23장 18절에는 ‘음행을 나타내다’(חָפְזָה[갈라] 강세형 능동태+תָּרַח[타즈누트/간음]와 병치되어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근친상간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서 “하체를 드러내다”와 유사한 표현은 חָפְזָה(갈라) 강세형 능동태+בָּ(아브)의 חָפְזָה(카나프)’(신 22:30[H 23:1]; 27:20)인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다/범하다”는 의미이다.²⁵ חָפְזָה(카나프)는 “날개(wing), 끝(extremity)”을 뜻하므로, 아버지의 ‘옷의 끝’(extremity of a garment), 즉 아버지의 “옷자락”(skirt)을 드러낸다/벗긴다는 의미에서 이 표현이 성범죄로 해석되는

23 이 표현이 레위기 20장 12-13절에는 단독으로 나온다.
 24 외국어 성경들과 신명기 22장 24절에 의하면, 이 번역과 아래에 언급되는 에스겔 22장 11b절의 그 표현에 대한 번역보다는 “욕보이다”(humble/violate)라는 번역이 오히려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에스겔 22장 11절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다”(חָפְזָה[아사] 기본형 능동태+חָפְזָה[토에바])로 간음을, “더럽혀 음행하다”(“defile through wickedness, lewdly defile”)라고 번역된 חָפְזָה(타메) 강세형 능동태+בָּ(비)+חָפְזָה(집마)로, 그리고 “구합하다”로 번역된 חָפְזָה(아나) 기본형 능동태+בָּ(비)로 근친상간을 언급하고 있다.
 25 참조, 한글개역, ESV. 사실상 에스겔 22장 10a절에는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다”(חָפְזָה[갈라] 강세형 능동태 + בָּ חָפְזָה[에르바트-아브/아버지의 하체])라는 표현이 나온다.

것으로 보인다.²⁶ 그런데 바로 이 הָלַח (갈라) 강제형 능동태+אָבַח (아브)의 קָנַח (카나프)라는 표현조차도 성관계와 관련된 다른 표현들과 병치되어 사용되어 있다. 신명기 22장 30절[H 23:1]에는 “취하다”라는 뜻의 הָקַח (라카흐) 기본형 능동태와 병치되어 있고, 신명기 27장 20절에는 “~와 동침하다”라는 의미의 שָׁכַב (샤카브) 기본형 능동태+אָמַח (임)²⁷과 병치되어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하체를 드러내다”라는 표현은 레위기 18장 6-19절과 20장 10-21절 등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불법적인 성관계의 전체 문맥을 통하여 그리고 성관계를 나타내는 다른 표현들과의 병치나 결합을 통하여 비로소 성범죄의 의미를 분명히 갖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다. 심지어 “하체가 드러나다”(הָלַח [갈라] 기본형 수동태+עָרְוָה [에르바])라는 표현조차도 그 문맥 또는 병치를 통하여 그 의미가 확실해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사 47: 3).²⁸ 특히 출애굽기 20장 26절의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에서 “하체가 드러나다”라는 표현은 성소의 문맥에 있기 때문에 성범죄의 함의가 없고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창세기 9장 21절의 경우에는 “하체를 드러내다”라는 표현도 아니고 “하체가 드러나다”라는 표현도 아니다. 게다가 עָרְוָה (에르바/하체)라는 명사와도 결합되어 있지 않으며, 노아가 주어진 הָלַח (갈라) 재귀형 (uncover himself)이다. 이것은 ‘성관계를 위한 의도로 남을 벌거벗기는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위한 의도와 상관없이 스스로 벌거벗는 것’이다. 21절의 문맥 자체도 성관계를 암시하거나 명시하는 문맥이 전혀 아니다. 이것은 본문의 명백한 진술 그대로 노아

26 참조, BDB, 489; LXX, VUL, YLT, ASV, NASB, TNK, ZUR.

27 ‘שָׁכַב (샤카브) 기본형 능동태+אָמַח (임)’이 신명기 22장 22절[2x], 23절에는 문맥상 “통간하다”로 번역되어 있고, 25절[2x], 28절, 29절에는 “강간하다”로 번역되어 있으며, “욕보이다”(humble/violate)로 번역된 קָנַח (아나) 강제형 능동태가 24절에는 단독으로 사용되어 있지만, 29절에는 ‘שָׁכַב (샤카브) 기본형 능동태+אָמַח (임)’과 병치되어 있다. ‘שָׁכַב (샤카브) 기본형 능동태+אָמַח (임)’이 신 27장 21절에는 수간에, 그리고 22절과 23절에는 근친상간에 사용되어 있다.

28 각주 14를 보라.

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결과일 뿐이다. 필시 노아가 술기운에 몸이 뜨거워져 너무 답답해서 스스로 벌거벗었을 것이다.

2) “하체를 보다”(הִרְאָה[ראה] 기본형 능동태+הִרְאָה[에르바])

창세기 9장 22절에 ‘아버지의 하체를 보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하체를 보다”(הִרְאָה[ראה] 기본형 능동태+הִרְאָה[에르바])라는 표현을 구약의 본문들과 그 문맥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레위기 20장 17절은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을 취하여(הִקַּח[라카흐] 기본형 능동태)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הִרְאָה[ראה] 기본형 능동태+הִרְאָה[에르바])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הִרְאָה[ראה] 기본형 능동태+הִרְאָה[에르바]) 부끄러운 일이라 그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그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הִלַּךְ[갈라] 강세형 능동태+הִרְאָה[에르바]) 그 죄를 당하리라.”라고 근친상간의 성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다. 레위기 20장 17절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레위기 20장의 성범죄의 전체 문맥에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하체를 드러내다/범하다”(הִלַּךְ[갈라] 강세형 능동태+הִרְאָה[에르바])라는 표현이 “취하다”(הִקַּח[라카흐] 기본형 능동태)라는 표현과 병치되어 나타나고 있으므로 성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확실하다. 게다가 “하체를 보다”(הִרְאָה[ראה] 기본형 능동태+הִרְאָה[에르바])라는 표현은 그 표현들과 병치되어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표현들의 중심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표현도 성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러나 창세기 9장 22절의 “하체를 보다”라는 표현은 그 문맥도 레위기 18장 6-19절과 20장 10-21절 등과 달리 성범죄의 문맥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의미하는 다른 표현들과 병치되거나 결합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게다가 레위기 20장 17절에는 ‘남자가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가 남자의 하체를 보는 것’을 근친상간의 성범죄로 묘사하고 있지만, 창세기 9장 22절에는 함이 그 아버지(노아)의 하체를 보았다고 언급되어 있지만 노아가 함의 하체를 보았다는 언급은 없다. 물론 부친과의 근친상간의 성범죄를 함이 범했다고 주장하는 이들

처럼 노아가 만취하여 인사불성이 되었기 때문에 함의 하체를 볼 수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롯의 두 딸이 이틀 밤을 나눠 그 아버지 롯을 만취하도록 만들고 각자 그와 동침하는 패륜을 저지를 때, 만취한 롯이 그 딸들의 하체를 볼 수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창 19:31-36). 그러나 롯의 그 사건은 33절과 35절에서 “~와 동침하다”(כָּבַד[사카브] 기본형 능동태+עַם[임])라는 분명한 성관계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에서 이미 이루어진 연구들을 종합해서 볼 때, 창세기 9장 22절은 근친상간의 성범죄 사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되었다고 우리는 간주할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에스겔 16장 37절의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네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גָּלַי(갈라) 강세형 능동태+הָרָעָה(에르바)]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רָאָה(라아) 기본형 능동태+הָרָעָה(에르바)]”에 나오는 표현들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하체를 보다”는 그 주어가 “그들”이므로 전쟁의 문맥상 강간의 성범죄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체를 드러내다”는 그 주어가 “그들”이 아니라 “내”, 즉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범죄로 해석할 수 없다. 더욱이 “하체를 드러내다”는 “그 앞에”(문자적으로는, “그들에게”)가 첨가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창세기 9장 23절은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에 덮였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고 묘사하고 있다.²⁹ 22절에서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표현을 근친상간의 성범죄로 해석한다면, 그 표현과 정반대인 23절의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אָל[로]+הָרָעָה[라아] 기본형 능동태

29 노아의 만취 사건에 대한 올바른 해석에 있어서 창세기 9장 23절의 중요성을 특히 Claus Westermann, *Genesis 1-11: A Commentary*, John J. Scullion (tr.), (Minneapolis, MN: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4), 488-489와 Gordon Wenham, *Genesis 1-15* (WBC: Waco, TX: Word Books, Publisher, 1987), 24가 지적하고 있다.

+עָרְבָה(에르바))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23절에서 그들이 שָׂמְלָה(시물라/옷)³⁰로 아비의 ‘하체를 덮었다’(כָּסָה[카사] 강세형 능동태+עָרְבָה[에르바])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옷을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הָלַךְ(할라크) 기본형 능동태+אָחֲרַיִת(아호란니트), go backwards]”라는 부분과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פָּנְיָהֶם אָחֲרַיִת(프네헴 아호란니트), their faces backwards]”라는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들과 함께 특히 에스겔 16장 8절의 “내가 … 내 옷[כְּנָפִי(카나프), skirt]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כָּסָה(카사) 강세형 능동태+עָרְבָה(에르바)]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³¹ 이것들 모두 우리는 당연히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면밀한 연구들을 통하여 볼 때, 창세기 9장 후반부의 사건, 즉 노아의 만취, 합의 범죄, 그리고 가나안의 저주 받음은 성범죄와 전혀 상관없이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사건임이 분명하다. 특히 창세기 9장 22-23절이 그것을 보다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지 않는가? 만약 합의 부친 또는 모친과 근친상간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가나안이 “그 형제의 종의 종”(25절), “셈의 종”(26절), 그리고 “야벳의 종”(27절)이 되는 저주로 끝날 것이 아니고 합의 반드시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³² 그리고 만약 합과 가나안이 부친(노아) 또는 모친과 근친상간의 공동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가나안이 그런 저주를 받는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고 합과 가나안 둘 다 반드시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근친

30 BDB, 971: “wrapper, mantle, usually square piece of cloth worn as outer garment”; 참조, 출애굽기 22장 26절; 신명기 24장 13절.

31 비록 에스겔 16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지어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버려진 피투성 이와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역사를 한 편의 드러마처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므로 일단 문자적인 이해에 기초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32 만약 합의 죄 또는 합과 가나안의 죄가 부친(노아)과의 근친상간의 성범죄라고 한다면, 그 죄를 하나님이 죽이신 오난의 죄(참조, 창 38:8-10)와 경중을 따져볼 때 어느 죄가 더 중한지 생각해볼라. 비록 르우벤의 경우에는 그가 부친 야곱의 첩인 서모 빌하와 통간한 죄로 그의 장자권을 상실하는 정도로 그쳤지만(참조, 창 35:22; 49:3-4; 대 상 5:1) 말이다.

상간의 성범죄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기 때문이다(레 20:11; 신 27:20; 참조, 레 18:7-8; 신 22:30; 겔 22:11).

창세기 9장 20-27절의 사건에서 함이 우연히 노아의 하체를 보고 형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가나안이 엄청난 저주를 받은 사실 때문에, 그것도 그 사건 자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가나안이 그 아버지 함으로 인해 저주를 받은 것 때문에 다양한 해석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18절의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언급에 복선(伏線)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18절에서 ‘셈은 누구의 아버지이고 야벳은 누구의 아버지라’는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22절의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18절의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와 교차대구를 이루고 있으며(함 : 가나안의 아버지 :: 가나안의 아버지 : 함), 게다가 저주를 받는 대상이 함이 아니라 사건에 등장하지도 않는 가나안이기 때문이다.³³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21절) 것은 확실히 그의 실책이요 과실이였다. 더욱이 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실책을 사태로 증폭시킨 장본인은 함이었다. 술이 깬 노아가 “그 작은 아들[즉, 막내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되었다(24절). 여기서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문자적으로는, “자기에게 행한 것”)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여(22절),³⁴ ‘영적 권위’인 아버지께 대한 사랑과 존경으로 그의 과실과 실책을 덮어주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고 실추시킨 것이다.³⁵ 바로 이

33 참조, Westermann, 윗글, 484; *contra* von Rad, 윗글, 135-136.

34 참조,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 (NICOT; Grand Rapids, MI: Eerdmans, 1990), 322-323.

35 참조, 김상래, 윗글, 153. 창세기 9장 24절의 “자기에게 행한 일”에서 “자기에게 행한 일”은 ‘그에 관해’(about him)가 아니고 ‘그에게’(to him)를 의미하기 때문에 노아의 추태를 가십거리로 삼아 ‘그에 관해’ 형제들에게 고한 것은 노아 저주의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논리(김상래, “노아의 음주”, 158)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창세기 9장 22절도 “그에 관해” 함이 형제들에게 고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노아가 만취하여 벌거벗은 상황을 함이 가십거리로 삼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형제들에게 말한 것 자체만으로도 노아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한 것이며, 바로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에게 행한” 것이다. 고든 웬햄(Gordon Wenham)은 함의 죄에 대해 이것 외의 다른 사유를 추론해 내려는 시도는 호도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서양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Wenham, 윗글, 200). 그러나 창세기 9장의 이 사건은 ‘위임된 영적 권위의 실수가 순종을 시험한 사

점에서 함의 처신은 23절에서 형들인 셈과 야벳이 취한 처신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었다.³⁶ 함의 바로 이 처신으로 인해 불행하게도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그것도 삼중으로) 받게 되었던 것이다.³⁷

창세기 9장 1절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장남 야벳, 차남 셈, 그리고 막내 함]에게 복을 주셨다고 언급하고 있다. 함의 그릇된 처신으로 인해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함을 노아가 저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³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창세기 12장 2-3a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그렇다. 선지자 발람이 발한 민수기 23장 9절,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라는 말과 민수기 24장 9b절,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라는 말에 비취볼 때도 그렇다. 그래서 노아는 함의 품성을 물려받은 그의 아들 가나안을 함 대신에 ‘예언적으로’ 저주했던 것이다.³⁹

간'이므로 호도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 권위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매우 중요한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이다.

36 참조, Hamilton, 윗글, 323, 특히 323 n. 10.

37 이 이야기에서 축복과 저주는 본질적으로 그 개인들에게가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발해진 것이고, 함의 후손들은 가나안의 후손들과 동일하기에 노아가 함 대신에 가나안을 저주했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없다는 베스터만의 주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Westermann, 윗글, 484; 참조, Wenham, 윗글, 197-198).

38 참조, David M. Goldenberg, “The Curse of Ham: A Case of Rabbinic Racism?”, Jack Salzman and Cornel West (ed.), *Struggles in the Promised Land: Toward A History of Black-Jewish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158; Justin Martyr, “Dialogue with Trypho”, Alexander Roberts and James Donaldson (ed.), George Reith (tr.), *Ante-Nicene Christian Library*, vol. II (Edinburgh: T&T Clark, 1870), 139; David W. Cotter, *Genesis: Berit Olam* (Collegeville, MN: The Liturgical Press, 1989), 63; Henry Hears, “The Curse of Noe”, *Catholic Quarterly* 12/1 (1950), 64.

39 참조, Ellen G. White, *Patriarchs and Prophets* (Nampa, ID: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58), 117-118; idem, *From Eternity Past* (Bolinan, CA: Shelter Publications, 1984), 69-70; von Rad, 윗글, 137-138; Hamilton, 윗글, 327.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창 27:27-29)과 에서에게 한 저주에 가까운 축복(창 27:39-40; 참조, 창 27:36b-38), 그리고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한 축복(49:2-27; 참조, 49:1, 28)도 예언적이지 않은가? 노아의 만취와 그 관련사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데, 다음과

3. 요약 및 결론

히브리어 본문에 근거하여 창세기 9장 20-27절을 면밀하게 읽어보고, 이 본문이 성범죄 관련 사건으로 해석되는 근거인 “하체를 드러내다”와 “하체를 보다”라는 표현들을 불법적인 성관계와 관련된 구약의 다른 본문들에서 자세히 살펴본 결과, 필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게 되었다.

첫째, “하체를 드러내다”라는 표현이 불법적인 성관계와 관련하여 레위기 18장 6-19절에서 12번, 레위기 20장 10-21절에서 5번, 그리고 에스겔 22장 10절에서 1번 사용되었다.

둘째, 레위기 18장 6-19절에는 그 시작(6절)과 끝(19절)이, “~에게 (성적으로) 가까이하다”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에게 (성적으로) 가까이하여 하체를 드러내다”라는 표현으로 봉입구를 이루어 이 단락을 하나로 묶고 있는 동시에

같이 교차대구를 이루고 있다: 1절, 셈(a)과 함(b)과 아벳(c); 2절, 아벳의 후손들(c); 6절, 함의 후손들(b); 21절, 셈의 후손들(a). 따라서 문법적인 구조로 볼 때, 셈의 후손들이나 함의 후손들이 아니라 아벳의 후손들이 교차대구의 중심에 놓여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내용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특히 주목을 끄는 사실은, 창세기 10장 6절(=대상 1:8)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인요”라고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가나안은 함의 장자가 아닌 것 같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이 함의 범죄로 인해 저주를 받은 어떤 근거가 이 족보에 암시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창세기 10장에서(역대상 1장에도 그렇지만) 붓의 후손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구스(a)와 미스라임(b)과 가나안(c)의 후손들은 각각 평행대구를 이루어(6b절, 구스[a]; 13절, 미스라임[b]; 15절, 가나안[c]) 언급되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특별히 구스의 후손과 미스라임의 후손이 매우 적대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창세기의 문맥, 나아가서는 오경의 문맥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땅 가나안을 상속받음에 있어서 가나인의 후손들(15-18절)은 그 죄악으로 인하여 멸절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적대적인 존재들이었다(창 15:15, 20-21; 출 3:8, 17; 13:5; 23:23, 38; 33:2; 34:11; 신 7:1; 20:17 등; 참조, 수 3:10). 그들을 멸절시키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그들의 침략으로 인해 고난을 받고 그들의 그릇된 감화력으로 인해 영적인 부패에 이르게 된다(특히 사사기를 참조하되, 사 3:5-6과 겔 16:3도 참조하라). 노아의 만취 사건과 보다 더 인접한 문맥에서 볼 때, 그 심판이 창세기 13장 10-13절에서 암시되고, 18장 20-32절에서 예고되며, 19장에 집행되는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평원의 다섯 도시(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소알]) 중에서 네 도시(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가 창세기 10장 19절에 언급되어 있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아의 세 아들에 관한 이 족보는 바벨탑/성 사건 바로 다음의 창세기 11장 10절 앞에 언급되어야 마땅하지만, 창세기 9장의 노아의 만취와 그 관련 사건, 특히 함의 아들 가나안이 받은 저주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연장선상에서 창세기 10장에 언급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만약 이 족보가 창세기 11장 10절 바로 앞에 언급되었다면, 이 족보에 바로 이어서 셈의 족보(창 11:10-26)가 나오게 되므로 창세기 10장 21-31절의 셈의 후손의 족보와 중첩되어 문법적인 단조로움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며, 바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신학적 사상의 자연적인 흐름도 제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창세기 9장의 사건과 10장의 족보의 상호 연관성에 관해서는 특히 Mathews, 윌렛, 413, 421, 423, 425를 참조하라.

이 단락에 전체적인 문맥을 제공한다. 게다가 14절은 “하체를 드러내다”(b)라는 표현에 “~에게 (성적으로) 가까이하다”(a)를 병치함으로써 그 표현에 성범죄의 의미를 부여하는 동시에 6-19절의 시작 및 끝의 “~에게 (성적으로) 가까이 하여[a] 하체를 드러내다[b]”와 교차대구를 이루어(a:b::b'a::a:b) 이 단락의 전체적인 문맥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셋째, 레위기 18장 6-19절의 이 견고한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7절[2x], 8-13절[6x; 매절에 1x], 15절[2x], 그리고 17a절[1x]의 “하체를 드러내다”는 불법적인 성관계를 뜻할 수밖에 없다.

넷째, 레위기 18장 6-19절에서 이렇게 “하체를 드러내다”의 의미가 명백해진 상황에서 17절 하단[1x]과 18절[1x]은 성적 함의가 있는 “취하다”가 결합된 “취하여 하체를 드러내다”의 표현으로 “하체를 드러내다”의 의미를 더욱 명백히 하고 있다. 17b절을 17a절과 연결해서 볼 때 17절은 “하체를 드러내다”(a)와 “취하여(b) 하체를 드러내다(a)”의 교차대구를 이루어(a::b::a) “하체를 드러내다”의 의미를 분명하게 만들고 있다.

다섯째, 레위기 20장 10-21절에는 그 시작(10절)은 “간음하다”[2x]와 “간부” 및 “음부”를 언급하고 그 끝(21절)은 “취하다”와 “하체를 드러내다”를 병치하여 이 단락의 전체적인 문맥을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11-20절의 시작(11절)과 끝(20절)은, “동침하다”라는 표현이 “하체를 드러내다”와 병치되어 봉입구를 이루어 이 단락의 전체적인 문맥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여섯째, 레위기 20장 11-20절의 이 견고한 문맥 속에서 단독으로 언급되는 “동침하다”(12, 13절)와 “취하다”(14절), 그리고 “하체를 드러내다”(19절)는 불법적인 성관계를 의미하게 된다.

일곱째, 레위기 20장 20절과 같이 18절도 “동침하다”와 “하체를 드러내다”를 병치하고 있으므로, 18절(a: “동침하다”와 “하체를 드러내다”), 19절(b: “하체를 드러내다”), 그리고 20절(a: “동침하다”와 “하체를 드러내다”)는 교차대구를 이루어(a::b::a) “하체를 드러내다”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다.

여덟째, 에스겔 22장 10절은 “하체를 드러내다”라는 표현을 “구합하다/육보

이다”와 병치함으로써 그 표현이 성범죄를 의미함을 나타내고 있다.

아홉째, “하체를 드러내다”와 유사한 표현으로서 근친상간과 관련된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다”라는 표현도 성관계와 관련된 “취하다”(신 22:30[H 23:1]) 및 “~와 동침하다”(신 27:20)와 병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이 불법적인 성관계를 의미하게 된다.

열째, “하체를 보다”라는 표현은 레위기 20장 17절에 나오는데, 그 표현은 바로 앞과 뒤에 “취하다”와 “하체를 드러내다”가 각각 병치되어 그것들의 중심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레위기 20장 10-21절의 성범죄 문맥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열한째, “하체를 드러내다”와 “하체를 보다”라는 표현들은 “하체가 드러나다”와 마찬가지로 불법적인 성관계의 전체 문맥을 통하여 그리고 성관계를 나타내는 다른 표현들과의 병치나 결합을 통하여 비로소 성범죄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열두째, 창세기 9장 21절의 ‘별거벗다’라는 표현은 그 문맥 자체도 성관계를 암시하거나 명시하지 않고, “하체를 드러내다”라는 표현이나 “하체가 드러나다”라는 표현도 아니며, “하체”라는 명사도 없고, 노아가 주어진 재귀형 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관계 의도와 상관없이 ‘스스로 벗는 것’이다. 이것은 본문의 명백한 진술 그대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결과 필시 술기운에 몸이 뜨거워져 너무 답답해서 스스로 벗었을 것이다.

열셋째, 창세기 9장 22절의 “하체를 보다”라는 표현도 그 문맥이 성범죄의 문맥이 아닐뿐더러 성범죄를 의미하는 다른 표현들과 병치되거나 결합되어 있지도 않다.

열넷째, 특히 창세기 9장 23절에서 셈과 야벳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는 것, ‘옷으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는 것, 그리고 ‘옷을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갔다’는 것은 모두 문자적으로 해석해야지 달리 길이 없다.

열다섯째, 함의 범죄와 가나안의 저주 받음은 이미 창세기 9장 18절의 “함은

가나안의 아버라.”는 언급에 복선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셈도 야벳도 누구의 아버라는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22절의 “가나안의 아버 함”이라는 언급은 18절과 교차대구를 이루고 있으며(함: 가나안의 아버::가나안의 아버:함), 게다가 저주를 함이 아니라 사건과 전혀 무관한 가나안이 받기 때문이다.

열여섯째,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만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것(창 9:21)은 분명히 그의 실책이었지만, 함은 그 아버의 하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고함(창 9:22)으로써 영적 권위자인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존경에서 그의 실책을 마땅히 덮어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고 실추시키고 말았다.

열일곱째, 셈과 야벳이 취한 처신(창 9:23)과는 매우 대조적인 함의 이 처신으로 인해서 그 범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 노아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함(창 9:1)을 저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참조, 창 12:2-3a; 민 23:9; 24:9b), 함의 품성을 물려받은 그의 아들 가나안을 ‘예언적으로’ 저주했던 것이다.

4. 참고문헌

김상래. “노아의 음주, 함의 범죄, 가나안의 저주(창 9:20-27)—그 난해한 인과관계 재고”, 제101차 한국구약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2016. 4. 29.), 151-161.

____. “노아의 음주, 함의 범죄, 가나안의 저주(창 9:20-27)—그 난해한 인과관계 재고”, 「신학리뷰」 19/2(2017. 8. 31.), 37-69.

김진명. “레위기 18장의 정경적 전개에 관한 주석적 연구 ‘땅이 토해낸다’는 표현의 의미 해석”, 「구약논단」 51(2014. 3. 31.), 96-121.

김창주. “김상래 박사의 ‘노아의 음주, 함의 범죄, 가나안의 저주(창 9:20-27)—그 난해한 인과관계 재고’에 대한 논찬”, 제101차 한국구약학회 춘계

- 학술대회 자료집(2016. 4. 29.), 163-164.
- 이충열·하계상. “창세기 2장 5-6절의 번역/해석 및 기능에 관한 고찰”, 『구약논단』 61(2016. 9. 30.), 76-104.
- _____. “레위기 16장을 중심으로 한 아사셀의 정체에 관한 재조명”, 『신학논단』 91(2018. 3. 31.), 175-205.
- 조미형. “레위기 18장의 성행위 금령 연구”, 『구약논단』 23(2007. 3. 31.), 120-146.
- _____. “레 18장과 고대 서아시아 법전의 성금령 비교연구”, 『구약논단』 32(2009. 6. 30.), 167-191.
- Cotter, David W. *Genesis: Berit Olam* (Collegeville, MN: The Liturgical Press, 1989).
- Gagnon, Robert A. J. *The Bible and Homosexual Practice: Texts and Hermeneutics* (Nashville, TN: Abingdon, 2001).
- Goldenberg, David M. “The Curse of Ham: A Case of Rabbinic Racism?”, Jack Salzman and Cornel West (ed.), *Struggles in the Promised Land: Toward A History of Black-Jewish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21-51.
- Ha, KyeSang. “Old Testament Eco-the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Righteousness and Justice”, *Theological Forum* 90 (2017. 12. 31.), 259-290.
- Hamilton, Victor P.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 (NICOT; Grand Rapids, MI: Eerdmans, 1990).
- Hears, Henry. “The Curse of Noe”, *The Catholic Quarterly* 12/1 (1950), 64-67.
- Martyr, Justin. “Dialogue with Trypho”, Alexander Roberts and James Donaldson (ed.), George Reith (tr.), *Ante-Nicene Christian Library*, vol. II (Edinburgh: T&T Clark, 1870).
- Mathews, Kenneth A. *Genesis 4:27-11:26* (NAC; Nashville, TN: Broadman

- & Holman Publishers, 1996).
- Steinmetz, Devora. "Vineyard, Farm and Garden: The Drunkenness of Noah in the Context of Primeval History",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3/2 (1994), 193-207.
- von Rad, Gerhard. *Genesis: A Commentary*. Revised edition. John H. Marks (tr.), John John Bowden (rev.), (OTL; London: SCM Press Ltd, 1972).
- Wenham, Gordon. *Genesis 1-15* (WBC; Waco, TX: Word Books, Publisher, 1987).
- Westermann, Claus. *Genesis 1-11: A Commentary*. John J. Scullion (tr.), (Minneapolis, MN: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4).
- Westermann, Claus and Albertz, Rainer. "גלה *glb* to Uncover", Ernst Jenni (ed.), Mark E. Biddle (tr.), *Theological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1997), 1:316-320.
- White, Ellen G. *Patriarchs and Prophets* (Nampa, ID: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58).
- _____. *From Eternity Past* (Bolinas, CA: Shelter Publications, 1984).

검색어

창세기 9장 20-27절

노아의 음주

하체를 드러내다

하체를 보다

불법적인 성관계

Reconsidering Noah's Drunkenness and Its Relevant Event (Gen 9:20-27)

KyeSang Ha,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Sahmyook University

In regard to the event associated with Noah's drunkenness in Genesis 9:20-27, various interpretations have been presented due to its intractable causality. The main issues of the debate on it are "What was the specific sin of Ham in relation to Noah?" and "Why was Canaan cursed in spite of having nothing to do with it?" The interpretation that has been getting more convincing lately is that of Ham's sexual crime,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joint sexual crime has most recently been offered in regard to Canaan's curse.

I reconsidered the interpretational problem of Genesis 9:20-27 not only by closely reading the Hebrew text of Genesis 9:20-27 as the final form from a synchronic/literary perspective but also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an inter-textual interpretation of the text done in association with other texts that have been claimed to be relevant. First of all, I especially paid attention to the context in which each of the expressions "uncover the

www.kci.go.kr

nakedness”(גָּלָה [gālā] *Piel* active + עֲרָוָה [erwā]) and “see the nakedness” (רָאָה [rā’ā] *Qal* active + עֲרָוָה [erwā]) is used in relation to sexual crimes in the texts of the Old Testament. Besides, I did not overlook the other expressions to be juxtaposed or combined with each of them, by which the texts of the Old Testament themselves intend to clarify the two Hebrew expressions.

I found out that the expressions “uncover the nakedness” and “see the nakedness” have the meaning of sexual crime only through the entire context of illicit sexual relations and through the juxtaposition or combination with the other sexually connoted expressions, as with the expression “uncover the nakedness of the father” or “the nakedness is uncovered.”

In the case of Genesis 9:21, however, neither the expression “uncover the nakedness” nor the expression “the nakedness is uncovered” occurs, and the verb גָּלָה (gālā) is not coupled with the noun עֲרָוָה (erwā), and גָּלָה (gālā) *Hithpael* (“uncover himself”) occurs with Noah as its subject. So Noah did uncover himself without any intentions of sexual offense. The context itself is not an indication of sexual intercourse at all. Thus, as the text clearly states, Noah must have uncovered himself because he drank of the wine, got drunk, and was so stuffy.

Even the expression “see the nakedness” in Genesis 9:22 cannot be construed as sexual offense, either because the context is not related to sex crimes, nor is it used in juxtaposition or combination with the other expressions of sexual offense. Moreover, in Genesis 9:23, the fact that Shem and Japheth took a garment and laid it upon both their shoulders and walked backward, that they did not see the nakedness of his father, their faces being backward, and that they covered his nakedness with a garment, can be interpreted in a literal sense only.

Therefore, the event of Genesis 9:20-27, Noah’s intoxication, Ham’s crime, and Canaan’s curse, is one that must be understood in a literal way, regardless of sex crimes. Noah’s “drinking of the wine, becoming drunk, and uncovering himself in the tent”(Gen 9:21) was certainly his mistake and fault. However, Ham’s crime nonetheless was to ‘see

the nakedness of his father and to tell his two brothers outside' (Gen 9:22), and thus to undermine and tarnish his honor and authority, although it was so natural that he should cover up his father's fault and mistake out of his love and respect for his father who was a spiritual authority. Due to this behavior of Ham, which was in stark contrast to the actions of his brothers Sam and Japheth (Gen 9:23), Canaan, Ham's son, who had nothing to do with Ham's crime, was cursed. Because God had blessed Noah and his sons (Gen 9:1), Noah could not curse Ham whom God had blessed (cf. Gen 12:2-3a; Num 23:9; 24:9b). Therefore, Noah 'prophetically' cursed Ham's son Canaan who would inherit the character of Ham.

Keywords

Genesis 9:20-27

Noah's drunkenness

uncover the nakedness

see the nakedness

illegal sexual intercourse

- 투고일: 2019년 10월 1일
- 심사일: 2019년 10월 27일
- 게재 확정일: 2019년 10월 29일

www.kci.go.kr